



### 03 문화

민족 대명절 추석, 기원부터 정책까지

### 04 학교

새롭게 태어난 진리관

### 05, 06 학교

지역 청년, 시민과 함께한 2024 대동제



▲전주대학포럼에 참석한 대학 구성원들과 미디어센터 학생기자단(사진 | 강수아 기자(xv0915@jj.ac.kr))

## 제2회 전주대학포럼 개최, <우리 대학 특성화 방향 모색>

지난 9월 11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제2회 전주대학포럼이 열렸다. '특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은 교내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으며, 당일 회의장에는 특성화에 관심 있는 대학 구성원들과 미디어센터 학생기자단이 자리했다.

사회를 맡은 윤찬영 대외부총장은 협력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히며 '무엇이 특성화인가? 우리 대학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의제토화두를 던졌다.

토론자들은 우리 대학이 정부 정책에 맞춰 대학 특성화 분야를 선정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며, 매년 입학률에 따라 학사 단위를 개편하는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눈에 띄는 특성화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현실적 한계도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특성화를 바라보는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먼저, '정부 정책 등 외부 환경뿐 아니라 우리 대학 내부 자원(교수)도 고려해 특성화 사업에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나수효과라는 측면을 언급하며 '특정 학과 영역을 강화하는 특성화를 통해 다른 학과도 고무 발전할 수 있다'라며 경쟁력 있는 학과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수의학과 신설을 그 예로 들기도 했다. 반면, 한 토론자는 '우리 대학의 정체성에 관한 특성화가 필요하다. 특정 학과만을 부각하는 것이 아닌 우리 대학의 정체성, 인재상 등 브랜드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며 거시적 차원의 특성화 방안을 제의했다.

또한, '외부 특성화 전문가 섭의를 통한 우리 대학 컨설팅이 필요하며,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학교가 단합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며,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가"라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라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교수 간의 협력에 기반한 질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특성화 사업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점 등 대학 특성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윤찬영 대외부총장은 포럼을 마무리하며 "이 포럼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내부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러한 포럼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구성원들과 함께 그려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주대학포럼은 교내 구성원의 의견을 취합하고 학교의 다양한 정책과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학교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직원뿐 아니라 재학생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 양예은 기자(kikiyye@jj.ac.kr)

## 도서관 올림픽, 즐거움과 배움, 유익함을 모두 잡다

우리 대학 도서관 로비에서 올림픽을 주제로 한 도서관 개강 이벤트가 열렸다.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3일간 '도서관 올림픽'이라는 이름으로 개강맞이 행사가 진행됐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행사는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32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8위로 마무리된 시점에 열려 재학생들의 이목을 끌었다.

탁구, 양궁, 사격, 골프, 배드민턴 총 5종목의 다양한 미니게임이 준비되었다. 실내 도서관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어린이 장난감이나 자체 제작한 놀이 도구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진행됐다. 소요 시간은 5분에서 20분 사이로, 바쁜 학생들도 공강이나 점심시간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에게는 종목에 맞는 메달 모양 초콜릿을 제공했으며, 추첨을 통해 소니 블루투스 무선 헤드셋, 캡슐 커피 머신, 블루투스 이어폰, 독서 노트 등도 증정했다.

추첨은 다양한 놀이를 완료해 도장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혹여 게임에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강의 지정·권장 도서 혹은 최다 판매 도서들을 대여하거나 전자 잡지, 신문 이용 방법을 익히면 스탬프를 받을 수 있었다.

도서관 김대선 선생님은 "재미있는 이벤트를 통해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했다"라며 성황리에 마무리된 행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행사에 참여한 재학생들은 "상품이 탐나 참여했는데, 덕분에 도서관의 새로운 이용 방법을 알게 되었다. 남은 학교 생활동안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다음 도서관 개강 행사도 기대가 된다"라고 전했다.

| 전지은 기자(uptoillie20@jj.ac.kr)

## 스타센터에 '카카오클라우드 디지털혁신센터' 유치, '인재 육성 기대돼'

카카오엔터프라이즈(대표 이경진)가 오는 12월 전북 카카오클라우드 디지털혁신센터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0일 전북자치도청에서 카카오클라우드 디지털혁신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해당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경진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 박진배 전주대학교 총장, 이해원 산학부총장, 정재웅 아토리서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협약은 지난 7월 김관영 도지사가 판교의 '카카오테크 부트캠프'를 방문해 전북에 디지털 혁신센터 구축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한 후 2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협약에 따라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디지털혁신센터를 구축해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인재 양성과 디지털 창업 기업을 지원한다. 전북자치도는 운영 및 협업사업 발굴을, 우리 대학은 공간제공과 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담당한다. 아토리서치는 교육을 주도하며 배출 교육생 채용 연계를 도맡는다.

디지털혁신센터는 올해 11월 우리 대학 스타센터 1·2층에 1,600㎡ 규모로 조성되며 12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종 디지털 분야에 관심 있는 재학생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카카오엔터프라이즈를 비롯한 관련 기업의 취업 기회가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디지털 혁신은 지역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라며 "센터를 구심점으로 지역 인재를 키워 스타트업을 만들고 기업을 유치해 탄탄한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이경진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는 "전북과의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업무 협약의 첫 번째 결실을 이뤄 기쁘다"라며 "전북 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전지은 기자(uptoillie20@jj.ac.kr)

▲ 사진제공 | 대외협력홍보실

## K-MOOC 강좌 수강하고 특별 학점 받자

우리 대학에서는 K-MOOC 강좌를 수강하고 특별 학점을 받을 수 있다. K-MOOC는 본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며 현재 수강중인 강의를 보강할 수 있는 제도다.

'무크(MOOC)'란 수강인원에 제한 없이(Massive), 모든 사람이 수강이 가능하며(Open), 웹 기반으로(Online) 미리 정의된 학습 목표를 위해 구성된 강좌(Course)이다. K-MOOC에서는 기존의 수동적 온라인 학습 방식에서 벗어나, 수강 기간 중 질의응답, 토론, 퀴즈 등을 통해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 양방향 학습이 가능하다. 우리 대학을 포함한 한국 내 여러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제작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강좌를 수강하려면 웹사이트(<https://www.kmooc.kr>)에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통해 선택한 강의를 수강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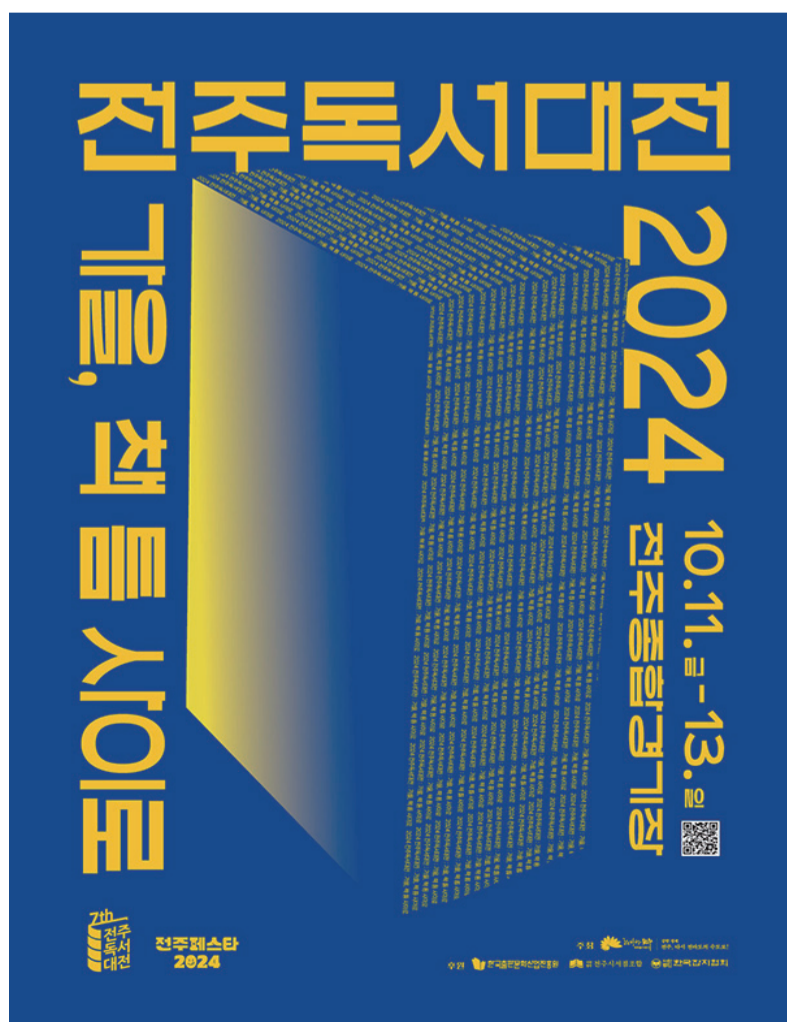
우리 대학에서 특별 학점을 받으려면 '이수증'이라 표시된 K-MOOC 강좌를 선택해야 한다. 토론, 퀴즈, 중간·기말고사 등에 참여해 점수를 취득하여 각 교수자가 지정한 기준 총점을 넘어야 하는데, 보통 60~70점 이상이면 이수증을 받을 수 있다. 단, 강좌마다 이수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르므로 '강좌 수강 정보'를 잘 확인해야 한다.

우리 대학에서 특별 학점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청 대상은 해당 학기 포함 8학기(건축학과 10학기) 이내의 재학생이며, 신청은 인스타(inSTAR) → 학사관리 → 특별 학점 인정 신청(이수증 첨부) 절차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2025년 1월 3일로 기간 내 이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K-MOOC 강좌는 한 학기에 1학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 중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하고 있다.

한편, K-MOOC 특별 학점을 신청한 경우, 성적표에 교과명은 'K-MOOC I, II, III'으로, 학수 구분은 '교양선택'으로 표기된다. 성적은 이수증을 기간 내에 제출한 학생에게 PASS로 기록된다. 만약 이번 학기에 특별 학점을 신청하면, 1월 10일 이후 2024-2학기 성적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오유진 기자(yujin03120@jj.ac.kr)

## 제7회 전주독서대전, <가을, 책 틈 사이로>



▲ 제7회 전주독서대전 포스터

책의 도시 전주시가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제7회 '전주독서대전'을 개최한다. 전주시는 인구 대비 도서관 비율이 높은 편이며, 긴 출판의 역사를 갖고 있어 책의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2017년을 시작으로 올해 7회를 맞이한 전주독서대전은 '전주페스타 2024'와 연계해 예년보다 많은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소도 옮겨 기존의 한옥마을 일대가 아닌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다.

전주독서대전은 본 행사에 앞서 '2024 전주 올해의 책', '시민공모전', '내 인생의 책을 소개합니다' 등 연중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전주독서대전의 바탕이 되는 '2024 전주 올해의 책'은 부문별(어린이 그림, 어린이 글, 청소년, 일반)로 올해의 책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책 읽는 문화를 만드는 시민 독서운동이다. 연중 프로그램은 전주독서대전 개최 전 성황리에 마무리했으며 행사 기간에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전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독서대전이 열리는 전주종합경기장에서는 사전 접수가 필요한 강연·세미나, 사전 예약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독서체험 및 전시, 북마켓, 체험부스와 함께 다양한 공연도 즐길 수 있다. 강연·세미나에서는 '2024 전주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계절은 짧고 기억은 영영>의 이주혜 작가, <각테일, 러브, 쏘비>의 조예은 작가를 포함해 9명의 작가를 만날 수 있다. 북마켓에서는 30개의 다양한 출판사와 서점이 책을 판매하며 이벤트도 진행하고, 우리 대학 문헌정보학과를 포함한 6개의 단체는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어린이를 위한 공연이나 다양한 전시, 에코백 만들기나 스탬프 투어와 같은 상시 체험을 제공하는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도 준비했다.

특히 우리 대학 문헌정보학과는 '책의 사이를 걷다'라는 부스 명으로 두 개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스스로 책의 틈을 메운다'는 의도를 담은 '자신만

의 책 만들기'와 '책의 틈 혹은 사이를 직접 정해본다'는 의미의 '비즈 책갈피 만들기' 프로그램은 독서대전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텍스트힙(Text Hip)'이라는 신조어가 부상하고 있다. 텍스트힙은 글자를 뜻하는 '텍스트'와 멋짐을 뜻하는 '힙'의 합성어이다. 독서가 멋지고 합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독서 경험을 SNS에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하며 등장한 이 단어는 20·30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유튜브와 OTT, SNS의 발달로 독서를 향유하는 사람이 적어지자, 역설적으로 독서를 즐기는 모습을 합하다고 여기게 된 것이다. 이는 2024 서울국제도서전의 방문객 수도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6월에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의 방문객은 전년보다 15.4% 상승했으며, 특히 젊은 세대의 관심이 높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 문맹률'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요즘, 이러한 독서문화는 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와 맞물려 다양한 독서 행사도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전주시는 '전주독서대전'과 '도서관 투어',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등 트렌디하고 활발한 행사로 시민들의 독서를 독려하고 있다.

'전주독서대전' 실무기획단을 맡은 문헌정보학과 이지순 학회장은 "무더운 날 사이 간간이 가을을 느낄 수 있는 10월, 가을과 함께 찾아오는 독서의 향기는 늘 달콤한 법이다"라며 "수많은 책과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 2024 독서대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 양예은 기자(kikiyye@jj.ac.kr)



# 민족 대명절 추석 기원부터 정책까지



지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였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까지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추석은 덩거나 좁지 않아 생활하기에 가장 알맞으며, 수확의 결실을 맺는 시기이기도 했기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만’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다. 이러한 추석의 기원과 문화 및 관련 정책까지 알아보려 한다.

## <추석의 기원>

추석을 명절로 삼은 것은 이미 삼국시대 초기로 추정된다. 『삼국사기』에서 신라 제3대 유리 이사금 때 부녀자들이 7월 15일부터 8월 한가위 날까지 한 달 동안 두레삼 삼기(베 짜기 시험)를 했는데, 마지막 날 심사를 통해 짠 편이 이긴 편에게 잔치나 놀이로 갖고 「회소곡(會蘇曲)」을 부르며 놀았다고 한다. 이때 시험 이름을 ‘가배(嘉俳)’라 했으며, 시간이 지나 순우리말인 ‘가위’로 바뀌었다. 8월의 한가운데 있는 날이라는 뜻이 추가돼 지금의 ‘한가위’가 되었다. 이 밖에도 추석을 지칭하는 다양한 표현들로는 가배일, 가배절, 가우일, 가우절, 가위, 가윗날, 추석날, 팔월대보름, 한가위, 한가윗날이 있다.

## <추석 문화>

이후 추석은 농경민족인 우리 조상들이 봄여름 가꾼 곡식과 과일들이 익어 수확할 가을에 풍년을 기원하는 모습으로 발전했다. 특히, 추석은 설날과는 달리 흰 떡국 대신 햅쌀로 밥을 짓고 햇곡식으로 송편을 만들어 차례를 지냈다. 차례가 끝나면 차례에 올렸던 음식을 온 가족이 함께 나누고 성묘를 한다. 3일간의 연휴가 주어진 것도 조상에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기 위해서다.

추석 대표적인 놀이에는 ‘강강술래(중요유형문화재 제8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가 있다. 강강술래는 한가위 밤에 호남 지역에서 여성들이 즐겨 하던 집단놀이이다. 서로 손을 마주 잡고 동그랗게 원을 지어 노랫가락에 맞춰 돌아가며 춤을 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처음에는 느린 가락인 진양조장단에 맞춰 추다가 점점 도는 속도를 빨리한다. 특히 앞소리꾼이 노래를 부르면 놀이에 참여한 사람들이 ‘강강술래’하며, 뒷소리를 받아친다. 또 다른 풍속으로는 ‘추석빔’이 있다. 추석이 다가올 즈음 기후가 쌀쌀해지므로 사람들은 여름 옷에서 가을 옷으로 갈아입는다. 이에 따라, 추석에 입을 옷을 준비하는 문화가 생겼는데, 이때 입을 새 옷을 ‘추석빔’이라고 한다.

하지만 요즘에는 추석 문화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바쁜 현대 생활과 도시화를 이유로 추석을 지내는 방식이 간소화되고 있다. 성묘 대신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전통적인 차례상보다는 간편하게 상을 차리는 가정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가족과 함께 보내는 명절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추석 연휴를 활용해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명절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

## <추석 관련 정책 돌아보기>

### 1.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및 기차 할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추석 연휴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특별교통 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국토교통부는 대책 기간에 총 3,695만 명, 일평균 616만 명이 이동하고, 이 중 88.4%가 교통수단으로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여 편의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였다. 지난 17년부터 계속된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올해는 추석 전·후 4일간(9.15~18) 진행되었다. 또 KTX·SRT에서는 역귀성일 경우 요금 할인(30~40%)이 있었다. 추석 기간 대중교통 이용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운행 횟수와 좌석을 평소 대비 각각 14.3%(1만 7,390회), 12.4%(약 11만 석) 늘리고, 9월 17일과 18일 양일간은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심야 연장 운영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9월 16일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인 9월 18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주차장, 문화시설 무료 개방

14일부터 18일까지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공공주차장 1만 5,000여 곳과 문화시설 44개소를 무료로 개방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학교 등이 국민편의를 위해 개방하는 주차장 정보를 취합해 공유누리과 민간지도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 공공주차장과 문화시설 정보를 공유누리 사이트와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시설로는 고궁, 유적지, 박물관, 미술관 등의 무료 개방이 있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창덕궁 후원을 제외한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추석 기간 휴무일 없이 무료 개방했다. 평소 예약제로 운영하는 종묘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었다. 무료 개방과 함께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과 수문장 순라의식도 사전 예약 없이 만나볼 수 있고, 도심 속 고궁 야간 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경복궁 야간관람, 창덕궁에서 펼쳐지는 창덕궁 달빛기행 등 국가유산청의 대표 궁궐 활용행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한편, 전주시는 국립전주박물관을 추석 기간 무료 개방했으며, 체육시설과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무료 개방했다. 무료 개방한 체육시설은 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덕진체련공원, 솔내생활체육공원, 완산생활체육공원, 아중체련공원, 고덕생활체육구장 총 6곳이다. 덕진체련공원과 솔내생활체육공원, 아중체련공원, 고덕생활체육구장은 추석 전날인 16일부터 2일간 무료 개방했고, 완산생활체육공원과 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의 경우 추석 당일인 17일부터 2일간 무료로 운영했다. 해당 체육시설에서는 테니스, 정구, 축구, 풋살, 족구 등을 즐길 수 있었다.

지금까지 이번 추석의 기원부터 추석 문화 그리고 관련 정책까지 돌아봤다. 정부에서도 여러 정책으로 지원할 만큼 추석은 우리 민족과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해온 명절이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추석을 보내는 모습도 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가족이 함께하는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 앞으로 추석을 맞이할 때, 가족들과 전통적인 가치를 되새기면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 시켜나가는 것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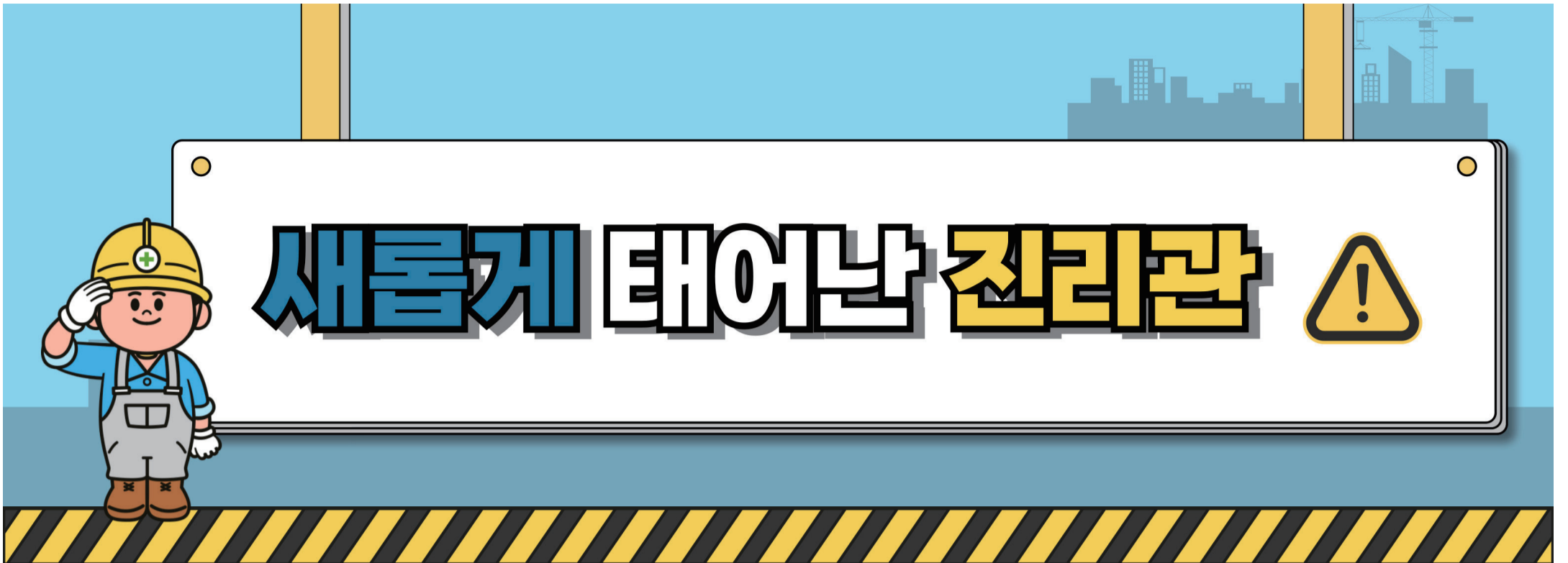
기사 | 오유진 기자(yujin03120@jj.ac.kr)  
디자인 | 권주익 기자(ehehtk@jj.ac.kr)

전주대신문 1965년 5월 15일 창간

(우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미디어센터 운영실 063) 220-2441  
대학신문사 편집실 063) 220-2442

발행인 | 박진배  
주 간 | 최소담  
편집장 | 송단비

편집: 대학신문사 편집부  
인터넷신문: jj.ac.kr/jjnews  
e-ISSN 3022-8212



지난 7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인문콘텐츠대학과 사범대학이 함께 사용하는 단과대 건물인 진리관 보수 공사가 진행됐다. 이번 공사는 중앙 로비, 화장실, 건물 외부 총 3곳의 중점 공사가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편의성이 향상됐다.

#### <중앙 로비 환경 개선>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은 중앙 로비 환경 개선이다. 천장 마감 작업과 바닥 타일을 전면 교체하고 중앙 출입문에 자동문을 설치하여 출입이 편리해졌다. 또한, 이중문을 설치해 방풍실을 조성함으로써 외부의 바람을 차단해 여름에는 냉방 효율을, 겨울에는 난방 효율을 크게 높였다. 이중문을 통해 외부 소음 저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더불어, 이전에 중앙 현관을 차지했던 탁자와 복합기를 정리하면서 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됐다.



#### <화장실 환경 개선, 건물 외관 개선>

진리관은 평소 화장실 관련 문제가 많이 제기됐다. 그동안 잦은 고장과 악취 문제가 있던 화장실은 이번 보수 공사에서 바닥 타일과 천장이 새로 교체되고 내부 벽 도색 작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소변기와 대변기를 포함한 위생기구와 세면대, 샤워기를 교체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화장실 칸막이도 새로 설치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쾌적한 화장실 이용이 가능해졌다. 건물 외부도 새롭게 단장했다. 오랫동안 흰색을 유지했던 외부 벽면이 하늘색으로 도색되면서, 색이 바래고 퇴색되어 버린 부분을 보완하는 동시에 건물의 외관 모습도 개선되었다.

중국어중국어학과 최혜림 조교는 “여름방학 동안 진리관에서 큰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건물이 오래되어 보인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밝은 색으로 도색 후 화사한 느낌을 받았다. 또, 사범대학과 인문콘텐츠대학이 같이 사용하는 건물인 만큼 좁은 중앙 현관에 사람이 많아 지나다니기 불편했던 적이 몇 차례 있었다. 하지만 책상과 복합기를 치워 넓은 공간으로 만들고 나니 쾌적한 공간으로 바뀌었다”라며 만족감을 전했다.

한국어문학창작학부 임치우 학우는 “1층 중앙 현관이 복잡했는데 정리 후 들어올 때 넓어진 느낌을 받아서 좋다. 그리고 건물의 분위기도 전보다 밝아진 느낌이다. 특히 비가 오는 날 6시 이후 건물 출입 시 건물 밖에 있는 에스원 경비 시스템으로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중문이 생겨 날씨의 제약을 받지 않고 건물 내부에서 에스원 경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만족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보수 공사를 통해 진리관은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났다.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더욱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학생 복지에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



지역 청년, 시민과 함께한

# 2024 대동제



지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대동제: 전북 청년 페스티벌'이 진행됐다. 제51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청년허브센터가 함께 주관한 이번 2024학년도 대동제는 우리 대학 구성원을 비롯해 지역 시민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서 다양한 체험과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 <1일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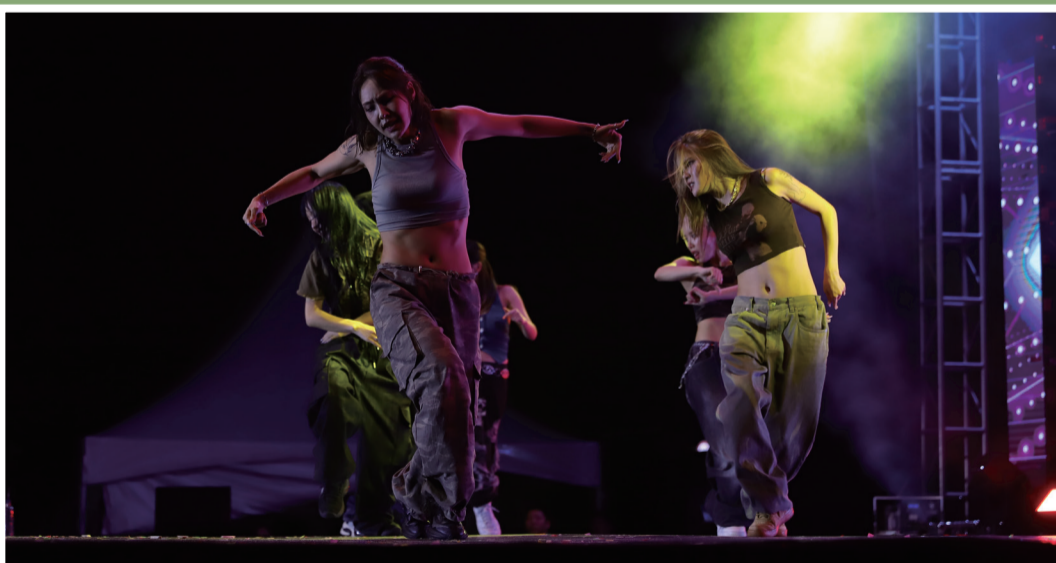
이번 대동제의 본 무대가 된 대운동장 입장은 12시부터 시작됐다. 이번 축제의 '레트로' 컨셉을 살린 여러 부스가 운영됐다. 재학생과 졸업생을 비롯한 지역 청년들이 참가한 플리마켓이 입점해 눈길을 끌었고, 동아리와 각 학과 및 학교 기관의 특색을 담은 체험 부스도 마련되어 즐길 거리를 더했다. 이 밖에도 여러 복고 컨셉의 게임이 진행됐으며 전주대 팝업 스토어에서는 마스코트 인형, 그림톡 등의 굿즈가 판매됐다.

다양한 푸드트럭과 먹거리 또한 즐거움을 더했다. 안전한 취식을 위해서 주류 음용이 가능한 알콜존과 비알콜존이 따로 배치됐다. 또한, 지역과 함께하는 축제인 만큼 청년축제 서포터즈와 청년정책 홍보관, 도내 대학 홍보관 등 전북 지역 청년들의 교류를 위한 부스도 함께 운영됐다.

운영본부에서는 팸플릿을 배부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부스에 참여한 뒤 팸플릿에 도장을 받으면 개수에 따라 돌립관, 추억의 추천권 등의 이벤트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추천을 통해 경품을 증정했다.

오후 6시 30분부터 '사계아트앤컬처'의 재즈 공연과 국악 밴드 '차오름'의 축하 무대가 시작됐다. 개막행사에서는 박진배 총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의 내빈 축사와 함께 한 비전 선포식과 드론 라이트 쇼가 본격적인 축제의 시작을 화려하게 알렸고, 우리 대학 태권도 시범단 '싸울아비'의 무대가 뒤를 이었다.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는 초청 가수 '너드커넥션', '비와이', '홀리뱅'의 무대가 있었다. 열정적인 무대 사이 빈 시간에는 부스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경품 추첨 이벤트가 진행되어 지속적인 학우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대동제 첫날은 무더운 날씨에도 큰 호응과 함께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 지역 청년, 시민과 함께한 \*

## 2024 대동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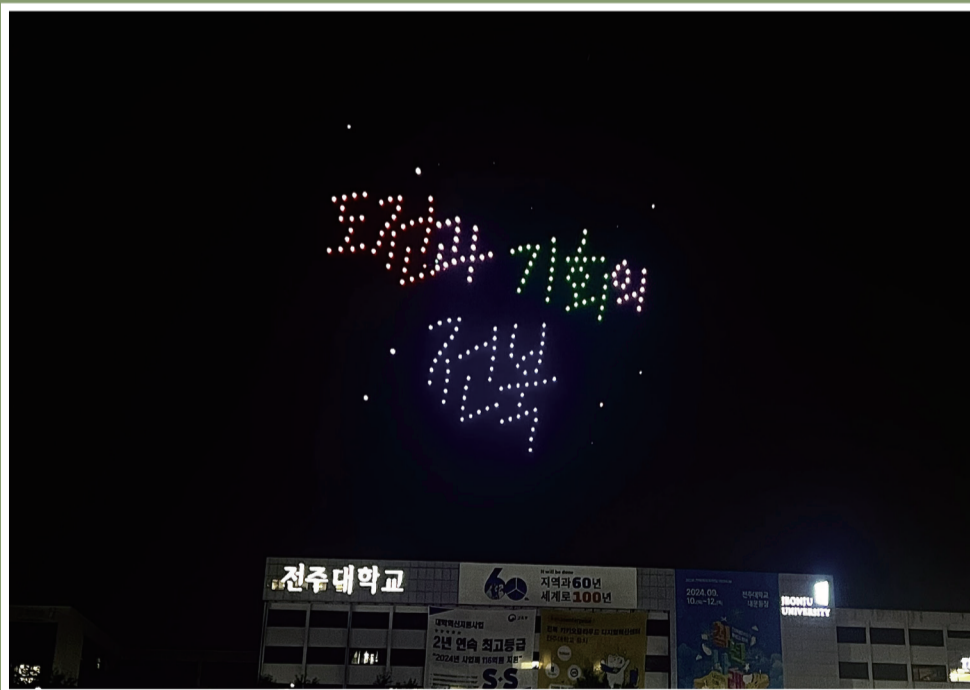
## &lt; 2일 차 &gt;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차 부스 상황을 반영하여 더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운동장 부스 운영시간 변경 공지를 업로드했다. 이에 따라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예정되어 있던 부스 운영시간이 오후 3시부터 7시까지로 조정됐다. 또한 전주대 구성원들의 수월한 입장을 돕기 위해 오후 12시부터 4시 30분까지 학생회관 1층 로비에서 사전 팔찌 수령이 진행됐다.

오후 6시부터 경품 추첨 이벤트에 이어, 밴드 '반디'의 공연이 있었다. 또한 곧바로 우리 대학의 밴드 동아리 '파랑새', '웁표', 그리고 버스킹 동아리 '은하수'의 공연이 이어져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오후 8시부터 10시 30분까지는 재학생들의 노래, 춤 등 다양한 끼를 뽐내는 "전주 핫 - 트송" 예선전이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차례로 무대 공연을 선보였고, 실시간 관객 문자 투표를 통해 본선 진출을 거뒀다.

오후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초청 가수 'QWER'와 '마크툽'의 공연이 이어졌다. 2일 차는 오후부터 시작된 비로 참여자들의 우려 목소리가 있었으나,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통제와 공연의 열기로 순조롭게 마쳤다.

## &lt; 3일 차 &gt;



3일 차에는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주 핫 - 트송" 본선 진출자 5팀을 공개했다. 본선 무대는 오후 6시에 진행되었고 마찬가지로 실시간 문자 투표를 통해 최종 우승 팀을 가렸다. 이어서 중앙동아리의 공연이 진행됐다. 뮤지컬 동아리 'MF', 버스킹 동아리 '노래방', 랩 동아리 '맨인블랙', 댄스동아리 'UCDC'가 축제의 마지막 날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마지막 추첨 이벤트가 짧게 진행된 후에 이어진 '범진', '미미로즈'의 공연과 'DJ캔드릭스, 릴재우, 가오가이, 키츠요지'가 진행한 EDM 파티가 참여자들의 뜨거운 환호를 끌어냈다. 열띤 분위기 속에서 "전주 핫 - 트송" 시상식이 진행됐고, 이후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는 '원슈타인'과 '전소미'가 마지막까지 축제의 열기를 이어갔다.

3일간 진행된 축제는 마지막 날까지 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됐다. 학우들은 우천과 일부 진행 미흡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축제를 이끈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에 격려와 감사를 표했다.

기사 | 김주은 기자(202315018@jj.ac.kr)

디자인 | 김예진 기자(ye\_yejin@jj.ac.kr)

사진 | 권주익 기자(ehehtk@jj.ac.kr)

## 전주대학교, 2024학년도 2학기 개강예배 진행



9월 11일(수) 오전 11시 전주대학교 대학교회에서 2024학년도 2학기 개강을 맞아 교직원 예배를 드렸다. 개강예배는 선교지원실 초빙교수 김관식 교수의 경배와 찬양 이후 한병수 선교봉사처장의 인도로 교수 선교회장 제혜금 교수의 기도, 전주팔복교회 조광훈 목사의 설교, 그리고 안양노회 장로 중창단 특송과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의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풍랑 속에서의 고요, 그 놀라운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조광훈 목사는 마가복음 4장 35~41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참된 믿음과 신앙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잠잠하게 전진하는 전주대 구성원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설교하였다.

참석한 교직원들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는 다짐을 하였다. 선교지원실은 앞으로도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함께 성장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갈 예정이다.

선교지원실 오예찬(ssd5205@jj.ac.kr)

### 예배안내

####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가 열려있다. 동료, 혹은 학생 중에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선교지원실에서는 함께 기도로 돕고 있다. 또한 교직원·학생들을 위한 신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 한병수 목사(대학교회 205호), 이진호 목사(대학교회 206호)

## 하나님의 위대하심



한병수 목사  
(선교신학대학원장·선교봉사처장)

세상에는 다양한 구분들이 재물을 부립니다. 선이라는 질서와 악이라는 질서가 모든 분야에서 주도권 쟁탈을 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탐식한 이후로 선과 악이라는 인위적인 구분이 판단의 목덜미를 쥐고 역사의 고삐를 당깁니다. 선악의 그 구분이 하나님도 수하에 넣으려고 어설픈 시비를 걸며 섭리도 놀이터로 삼습니다.

최고의 선, 선 자체, 모든 선의 샘 되시는 하나님은 선과 악이 함부로 가붙어도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선이나 악은 인간 안에서나 그러하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기능과 효력을 잃습니다. 하나님은 악의 근본을 좌우하는 분이시고 악으로 선도 이루시고, 선으로 바꾸기도 하십니다. 선과 악의 구분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에게는 흑암과 빛이 다르지 않습니다. 흑암이 주님께는 숨기지 못합니다. 그분 앞에서는 밤도 낮과 같이 비춥니다.

빛보다 더 밝은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빛은 비추는 게 아니고 어둠은 가리지를 못합니다. 선악의 구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신을 잃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굽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차가운 권선징악 개념도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어둠으로 덮지 못하고 빛으로도 번역되지 않습니다. 선과 악으로도 가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인간의 질서와 규정이 얼마나 임의적인 것인지와 하나님과 비기려는 그 교만이 더 잘 보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경외할 뿐입니다.

## 기도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관되고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전주대학교에 많은 학생들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들을 보내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며 살피며 교육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의 방법대로 주님이 몸소 보이신 섬김으로 그들을 양육하길 원합니다.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

소서. 무엇보다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전주대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이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예수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이 복음 전하는데 우리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매월 대학 구성원들이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찾아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데 성령님 함께 하여주시옵소서. 복음자체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총장님을 비롯한 리더십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투 왕과 같은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들이 유혹들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평안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이 일하실 것들을 묵도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주대학교 안에서 주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범수 실장  
(선교봉사처 선교지원실)

## 기자칼럼

## 선수 보호와 공정성: 변화가 필요한 스포츠협회



마경진 기자  
(alfpwnsg12@jj.ac.kr)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전 세계인의 축제인 파리올림픽이 열렸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하여 전체 8위라는 높은 성적을 거뒀다. 특히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에서 안세영 선수가 중국의 허빙자오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회가 끝난 뒤 이러한 성과만큼이나 조명받은 사안이 있다.

“제 부상은 심각했고,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안일하게 대처한 대표팀에게 실망해 이 순간을 끝으로 (함께) 계속 가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이는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발언이다. 이로 인해, 배드민턴 협회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안세영 선수는 협회의 부상 관리 및 훈련방식, 의사결정 체계 등 선수 관리 시스템을 비판하고 변화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 첫째. 무릎 부상 오진

안세영 선수는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 도중 무릎 인대를 다쳤다. 부상 직후 정밀검진에서는 2~4주 재활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와 재활 후 11월에 또다른 국제대회에 출전했다. 그러나, 이후 실시한 재검진에서 부상 정도가 처음 판단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올림픽을 반년 앞둔 중요한 시점에 핵심 선수의 부상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실수가 나온 것이다.

#### 둘째. 전담 트레이너 배정 거부

안세영 선수는 지난 2월부터 전담 트레이너와 함께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반년 가까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대회 기간 중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하고 싶다고 협회에 전달했지만, 최종 무산되었다. 또한 협회 측은 이러한 요청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도 밝혔다.

#### 셋째. 프랑스행 이코노미석 이용

안세영 선수는 올림픽에 참가하기 전 컨디션 관리를 위해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동료와의 형평성 문제를 알면서도 요청한 건 무릎부상의 후유증을 걱정한 탓으로 보인다. 협회는 지난 2018년에도 비즈니스석 논란에 휩싸였다. 감독과 선수 등 6명은 이코노미석을 이용한 것과 반대로, 임원진 8명은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많은 질타를 받았다.

#### 넷째. 국제대회 참가 일방 통보

협회가 선수와 사전협의 없이 올림픽에 앞서 열린 특정 대회 참가를 강요하거나 불참을 결정했다는 내용도 논란이 불가피하다. 선수는 본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출전을 강요받거나, 그 반대의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스포츠 협회가 대중의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양궁협회의 운영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수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 외에도 정의선 대한양궁협회 회장(이하 정의선 회장)은 직접 파리 현장에서 숙소를 둘러보고 식사를 준비하는 등 현장에서 몸소 응원전을 펼쳤다. 파리 경기장은 강바람이 강한 것을 고려해 남한강변에도 훈련장을 마련했고, 선수촌에는 파리올림픽 대회장과 똑같은 무대를 설치해 선수들의 적응을 도왔다.

정의선 회장은 한국 양궁이 세계 최고의 위상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 “현재의 협회 시스템을 구축한 선대 회장님들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 선수와 협회, 코치진이 서로 믿고 대회에 임한 것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졌다”라고 말했다.

일련의 사건을 통해 스포츠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에 있어 선수들의 노력과 열정만큼이나 선수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각 스포츠협회의 공정함, 올바른 체계 확립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부각되었다.

이번 일로 일부 스포츠협회의 인사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행정 절차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사실도 재조명됐다. 예시로 대한축구협회가 있다. 올해 초부터 있었던 국가대표 감독 선임 논란, 협회장 논란 등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에 뿌리가 되는 종목별 협회에서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정하게 운용되어야 할 협회가 여러 논란에 휩싸인 사실이 스포츠 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대회에서의 주인공은 선수들이다. 그런 선수들을 배려하고 선수들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스포츠협회들의 많은 변화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 <독도의 날>

김예은 기자(ekfzmsdl@jj.ac.kr)



## 교수칼럼



류정훈 교수  
(인문콘텐츠대학 일본언어문화학과)

## 요괴나라 일본의 매력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의 <이웃집 토도로(となりのトトロ)>도 이제 고전이 되었다. 가끔 수업 중에 토도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면 토도로의 존재를 아는 학생은 꽤 있지만 실제로 <이웃집 토도로> 전편을 본 사람은 많지 않다. <이웃집 토도로>는 아픈 어머니를 위해 아버지와 함께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 온 사쓰키와 메이, 두 자매가 주변의 신비로운 존재를 만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이다. 사쓰키와 메이, 두 자매가 시골집에 이사온 첫 날에 마주하는 것은 낡은 집 곳곳에 붙어있는 검댕이, 즉 먼지들이다. 이 먼지들은 오랜 세월이 축적되어 얻은 생명력으로 집안 곳곳을 휘젓고 다니기까지 한다. 집에 쌓인 먼지도 세월이 지나 요괴나 정령으로 변할 수 있는 세계를 <이웃집 토도로>는 담아냈고, 사쓰키와 메이는 현대인이 잊고 있던 자연과의 조화, 가족의 소중함, 이웃과의 유대관계 등을 이 세계에서 끄집어내 우리에게 전달한다. 내 주변의 여러 존재가 요괴나 정령으로 변할 수 있는 세계는 지브리와 미야자키 하야오의 단골소재이기도 하

다. <모노노케히메(もののけ姫)>에서는 멧돼지나 사슴 같은 동물이 신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토도로의 원형이기도 한 수많은 숲의 정령이 등장한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千と千尋の神隠し)>에서는 터널을 하나 지나면 요괴들로 가득찬 세상이 펼쳐지고, <헤이세이 너구리전쟁 폼포코(平成狸合戦ぽんぽこ)>의 너구리들은 인간으로 변신해 현대인과 함께 고단한 삶을 이어간다. 우리 주변의 동물부터 자연물, 먼지에 이르기까지 지브리가 요괴로 그려내지 못할 것은 없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 요괴나 정령으로 변한 것을 일본에서는 쓰쿠모가미(付喪神)라고 부른다. 사물에 신이 깃들었다는 뜻이다. 무로마치 시대의 「백귀야행 그림첩(百鬼夜行絵巻)」은 아심한 시각에 인간들의 눈을 피해 행진하는 쓰쿠모가미의 모습을 유머러스하게 그려내 웃음을 자아낸다. 현대판 백귀야행은 <요괴워치(妖怪ウォッ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저기 요괴들로 가득찬 <요괴워치>의 세계에서 요괴

는 놀이터에도 학교에도 집안에도 있다. 일상의 사소한 문제들은 대부분 요괴의 짓이다. 오늘 아침에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한 것도, 내가 학교에 숙제를 가져가지 못한 것도 모두 요괴 탓이다. 요괴를 대면하지 않고는 일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법이 없다. 수많은 요괴 캐릭터들이 줄지어 울동하며 노래를 부르는 <요괴워치>의 오프닝 테마는 더욱 확장되고 코믹해진 백귀야행에 다름아니다.

야오요르즈노카미(八百万の神) 신앙은 이런 일본 특유의 사고방식을 총칭하여 부르는 말이다. 전통시대의 동양사회에서 백과 만이라는 숫자가 고정된 하나의 숫자를 의미하기보다 '무척 많다'는 추상적 개념을 의미하는 것과 같이 일본에서는 팔이라는 숫자 역시 '매우 다양하고 많다'는 의미로 쓰여 왔다. 그러나 팔백만의 신이라는 뜻의 야오요르즈노카미는 너무 많아서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신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신화 속의 신부터 조상신, 동물신, 사물신, 정령신까지 조금 비약하자면 일본인의 전통적 세계관에서는 세상만물이 모두 신인 셈이다. 그리고 신들 중에서 인간의 지속적인 관심과 추앙을 받지 못하고 쇠락하는 존재는 요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일본의 민속학자 고마쓰 가즈히코(小松和彦)는 일본에서 신과 요괴를 나누는 기준으로 인간에 의한 제례가 존재하는지를 들기도 했다. 어떻게 보면 신과 요괴는 속된 말로 한 곳 차이인지도 모른다. 인간으로 변신할 수 있는 여우 요괴 중 어떤 여우는 농경의 신으로 숭상될 수 있고, 산신의 위상을 지녔던 야만바(山姥)가 인간을 잡아먹는 요괴로 위상이 추락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저기 신과 요괴들로 범람하는 세계를 일본인들은 줄곧 상상해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야기와 캐릭터들이 생성되었다. 이렇게 축적된 요괴문화콘텐츠는 현대에 이르러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무엇보다 요괴는 돈을 부른다. 물가에 사는 요괴 갓파(河童)와 스모를 해서 이기면 금은보화를 얻을 수 있다는 오래된 속설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 요괴가 불러오는 돈은 그 정도의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다. 앞서 언급한 <요괴워치>도 애니메이션, 게임 등으로 막대한 흥행 수익을 올렸지만 요괴가 불러온 경제적 효과의 대표격은 <포켓몬스터>라 할 수 있다. 글로벌 데이터 분석업체인 스태티스타의 2022년 8월 자료에 따르면 포켓몬스터 IP는 1996년 출시부터 자료 집계 시점까지 전세계에서 총 1050억 달러(약 137조7952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냈다고 한다.

요괴는 지방을 살리기도 한다. 현대일본의 요괴붐을 선도한 요괴만화가 미즈키 시게루(水木しげる)의 고향 돗토리현 사카이미나토시(鳥取県境港市)는 미즈키 시게루의 대표작 <게게게의 귀太郎(ゲゲゲの鬼太郎)>에 등장하는 요괴 캐릭터로 꾸민 미즈키 시게루 로드를 선보여 단숨에 관광명소로 떠올랐다. 요괴 열차를 타고 마을에 들어서면 각종 요괴 모양 조형물과 굿즈들로 가득찬 이세계가 펼쳐진다. 요괴에 대한 지식을 쌓고 요괴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관광객들은 다소 색다른 일본의 전통문화를 향유한다. 세토나이가키에 위치한 외딴 섬 쇼도시마(小豆島)는 인구감소로 늘어나는 빈집들을 요괴문화를 즐기는 테마파크의 형태로 만들고 인근지역의 대학들과 연계해 학생들의 숙박시설이나 워크숍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1년에 방문객이 2만 명 정도에 불과했던 쇼도

시마에는 현재 5배가 넘는 관광객이 발길을 옮기고 있다. 효고현 후쿠사키초(兵庫県福崎町)에서는 지자체의 지역진흥과가 주도적으로 나서 강에서 갓파가 출몰하는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해 2023년에 7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기도 했다. 오랜기간 축적된 요괴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일본의 지역사회는 오래전부터 나름의 활로를 모색해왔고 이제는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지방이 화두의 중심에 위치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른다. 정부는 2023년 9월 지방시대 선포식을 거쳐 11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연구재단에서도 2024년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HUSS사업)의 신규주제로 '지방시대의 지역기치창출'을 내걸었고, 전주대학교는 지역의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역량을 발휘해 이 사업의 주관대학으로 선정되었다. 3년간 90억의 국고를 지원받게 된 전주대학교 앞에는 이제 지역의 혁신기치를 창출할 인문사회융합인재를 양성해야한다는 막중한 책임이 놓여있다. 앞서 일본의 요괴문화가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와 지방 활성화의 사례를 소개했지만, 당장 우리가 일본의 사례를 복습하여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한가지 참조하고 싶은 것은 요괴라는 이름의 전통문화를 현대에 소환하는 과정과 방식이다. 현대 일본에서 요괴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과 같이 서브컬처를 주도하는 미디어와 결합하면서 가능했다. 조심스럽지만 우리 지역의 매력적인 전통문화가 다양한 미디어와 결합하여 창출할 새로운 지역기치를 들뜬 마음으로 기대해본다.

## 기자칼럼

### 요즘 문화생활 좀 어떠세요? -부담스러운 영화 관람료



김주은 기자  
(202315018@jj.ac.kr)

최근 배우 최민식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영화 티켓값 좀 내려요, 나라도 극장 안 가”라는 발언을 해 영화 관람료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불거진 바 있다. 2024년 현재, 성인 기준으로 주말에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티켓값이 약 15,000원이다. 여기에 팝콘, 콜라 등 매점 간식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금액은 순식간에 2만 원을 넘게 되며, 군것질하지 않더라도 2인이 함께 영화를 보면 순식간에 3만 원의 지출이 생기는 셈이다.

영화 관람료는 언제부터 이렇게 치솟았을까? 2013년 주말 기준 1만 원이었던 영화 관람료는 2018년 12,000원까지 오르게 되었고, 이후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치며 가파르게 상승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00원씩 가격 인상이 이루어져, 현재는 15,000원에 이르게 됐다.

이렇듯 영화 관람료가 상승하자 사람들은 더 이상 가벼운 마음으로 가성비 좋은 문화생활을 즐기러 영화관을 방문하지 않는다. 유독 좋아하는 감독이나 배우의 작품이 아니면, 혹은 웬만큼 기대되는 영화가 아니면 영화관에 잘 가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영화 자주 보세요?”라는 질문에 “전에는 자주 봤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영화관에 간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답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새로운 영화가 개봉하면 큰 관심이 없더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영화관에 들러 관람하곤 했던 사람들마저 점점 티켓값의 부담에 발길을 돌리고 있다. 부담스러운 가격을 지불한 만큼 영화 내용이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않거나 영화관의 서비스가 미흡하면 더 큰 불만족을 느끼게 된다.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지’ 따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영화 관람료 인상만큼 영화관의 서비스는 전에 비해 발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요즘의 영화관은 ‘즐겁지 않다’라는 평을 듣는다. 영화관에서만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무방하다. 큰 이유 중 하나는 영화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수가 대폭 감소한 것이다. 영화관에 도착해서 천천히 시간을 들여 영화를 고르고, 놀이공원에서 줄을 서듯 지류 티켓을 끊고 검표하는 과정에서 오는 설렘과 즐거움

이 사라졌다. 개봉 초반에만 일부 지점에서 진행되는 선착순 이벤트가 아니면 영화 포스터나 팸플릿 등의 굿즈를 모을 수도 없게 됐다. 거의 모든 주문이 키오스크와 온라인 예매로 진행되고, 검표조차 하지 않는 요즘 영화관에서 만나는 직원이라곤 텅 빈 영화관 전체 공간 중 매점에 배치된 한두 명의 직원이 전부다.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눈부신 발전으로 며칠만 지나면 최신 영화를 언제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고, 월 구독료조차 영화 한 편 가격인 15,000원보다 저렴하다. 게다가 영화관이라는 공간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이 사라지고,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조차 없게 된 요즘이다. 특수성이 사라진 영화관이 갖는 가치는 큰 화면과 풍부한 소리로 감상할 수 있는 ‘영화’ 그 자체뿐이다. 그러나 관객들이 비싼 돈을 지불하고 과연 이 영화가 마음에 들지, 들지 않을지와 같은 일종의 도박을 하지 않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영화관 측은 팬데믹 이후 업계 침체가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 물가 상승으로 공간 유지를 위한 고정 지출이 늘어 관람료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제작사와 배급사는 영화 관람료 인상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비싼 관람료로 관객들이 영화관을 찾지 않는다면 수익은 더욱 악화되며, 추후 좋은 영화에 투자하고 제작할 여력마저 줄어들며 현재의 악순환을 지적했다.

극장 관객수 감소에 대한 업계의 우려 섞인 말에 관객들은 한결같이 비싼 영화 관람료를 이유로 든다. 영화는 대중 오락인 만큼 관객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소비할 수 있을 만한 가격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큰 폭의 가격 인하가 어렵다면, 조금이라도 가격을 내리되 영화관의 특수성을 되살려야 할 것이다.

바야흐로 범람하는 OTT와 숏폼의 시대다. 사람들이 영화관에 굳이 방문할 만큼의 ‘값어치’를 생산할 방법은, 결국 대체할 수 없는 그 공간만의 정서를 강조하는 것 아닐까?

## Jeonju University Signs Business Cooperation Agreement (MOU) With Japan's AB Akomo Co., Ltd

Jeonju University (President Park Jin-bae) and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nvergence Talent Development Project announced the establishment of a cooperation agreement to jointly establish industry-academia research,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convergence talent internships and joint training with Japan's AB Akomo (CEO Shinzo Abe) on September 12th.

The signing ceremony, held at Jeonju University's Truth Hall, was attended by eight officials from both organizations, including Lee Yong-wook, head of Jeonju University's Humanities and Social Convergence Talent Development Project, and Yoshiaki Kanda, deputy head of Japan's AB Akomo.

Through this agreement, the two organizations agreed to cooperate closely with each other to cultivate convergent talents by establishing an internship system and providing opportunities for students in the future ▲ mutual cooperation by sharing industrial and academic resources and joint development research ▲ joint training plan for improving industrial knowledge and skills for convergent talents ▲ providing employment opportunities in hotel management and hospitality-related fields for graduates.

Through this agreement, we will provide convergent talents with opportunities for job experience, including hotel management, and strive to establish a training course for industry-academic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talent development, said Lee Yong-wook, head of the project.

For its part, Jeonju University is developing convergent talents who contribute to digital innovation and future value of local resources, with about 9 billion won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ver three years through the humanities and social convergence talent development project that establishes a convergent education system centered on humanities and society, and cultivates convergent talents necessary for the future of society.

article Humanities and Social Convergence Talent Training Project Group  
translated by reporter Kwon Ju-ik(ehehtk@jj.ac.kr)

## The Entrepreneurship Support Group signed an MOU with Jeonju Agricultural and Life Materials Research Institute to promote technology start-ups

Jeonju University (President Park Jin-bae) and the Jeonju Institute of Agricultural and Life Materials (Director Kim Sang-nam) announced on September 10th that they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to promote technology start-ups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at Jeonju University on the 9th.

This agreement originated from the joint goal of the two institutions to lay the groundwork for early start-ups and prospective founders to expand, apply, and converge technology.

Based on the technical resources and infrastructure owned by both institutions, this agreement is expected to greatly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technology start-ups and sustainable growth in the community. The two organizations plan to gradually expand the scope of cooperation and continue their efforts to support founders and commercialize technology in more diverse fields in the future.

"This agreement supports various programs to make technology-based start-ups easier for prospective start-ups and lays the groundwork for sharing infrastructure and resources owned by both institutions," said Kim Sang-jin, head of Jeonju University's start-up support group.

Kim Sang-nam, head of the Jeonju Institute of Agricultural and Life Materials, said, "Through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organizations, we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fostering companies and creating jobs in the region as well as creating new industries in the future agricultural and life sector by promoting startups using technology in the agricultural and life sector."

Jeonju University's Start-up Support Group operates various support programs and start-up incubation centers for prospective start-ups and early start-ups to achieve its vision of a "hub of venture start-up innovation leading successful start-ups," provides innovative education and mentoring services to revitalize the start-up ecosystem, and serves as a bridge between technology and start-ups through a network of experts in various fields.

article Start-up Support Group  
translated by reporter Kwon Ju-ik(ehehtk@jj.ac.kr)

## Jeonju University, Jeonbuk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Business Agreement... "Enhanc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Jeonju University (President Park Jin-bae, hereinafter Jeonju University) announced on September 12th that it signed a business agreement with the Jeonbuk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motion Agency (President Kim Dae-sik) on the 11th to enhance Jeonju University's international status and strengthen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local community.

About 10 officials from Jeonju University and Jeonbuk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including President Park Jin-bae and Kim Dae-sik, head of the Jeonbuk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signed a business agreement in the interview room of Jeonju University's main building, and pledged active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organizations to exchange foreign students and improve the local community's internationalization capabilities.

The main contents of this agreement include ▲ Jeonbuk Internationalization Promotion Project ▲ Foreigner Settlement Support Project ▲ Overseas Expansion Support Project.

Through this agreement, we will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that encompasses the region and the world, and continue to make various efforts to foster talent and coexist in the region, said Park Jin-bae, president of Jeonju University.

In addition, after the conclusion of the signing of the business agreement, Kim Dae-sik's special lecture was held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students in the hotel management department. In the special lecture held under the theme of "Cultivating International Minds and Strengthening Overseas Employment Competency," Kim Dae-sik vividly described the international activities and work experiences he has performed for a long time, greatly helping students plan their careers.

Jeonju University is pushing for win-win cooperation with local communities and fostering global talents with the slogan of "60 years with the region, 100 years with the world" to mark the 60th anniversary of the university's opening.

article International Exchange Service  
translated by reporter Kwon Ju-ik(ehehtk@jj.ac.kr)

## Jeonju University LINC 3.0 Project Group, big data talent training operation

Jeonju University's (President Park Jin-bae) LINC 3.0 Project Group announced on the 2nd that it has conducted "2024 Citizen Data Scientist (CDS) Big Data Education" for Jeonju University students to cultivate digital creative talent.

The 2024 CDS Big Data Education, which was held with the suppor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was held at Jeonju University Engineering Hall 1 from August 26 (Mon) to August 30 (Fri), with 20 students participating and 17 students completing the training.

Ten students will be selected from the students who completed this time to participate in the 5th National Big Data Competition, which will be co-hosted by 10 universities across the country, on October 5 (Sat).

Jeonju University's LINC 3.0 Project Group's Creativ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enter (Professor Kang Sung-soo) said it operates various kinds of creative education, and programs to cultivate creative thinking and practical skills in response to the digital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Kim Sang-jin, head of Jeonju University's LINC 3.0 project group, said, "As a leading university in cooperation with Jisan Academic Research Institute, students will expand their programs to improve their practical skills for future digital content and work harder to cultivate excellent future creative talents for regional innovation (RISE) in 2025."

article LINC 3.0 Project Group  
translated by reporter Kwon Ju-ik(ehehtk@jj.ac.kr)

## 全州大学经营系为优秀留学生颁发奖学金



全州大学（校长朴珍培）经营系9月19日正式对外公布，于9月11日经营系为本系的优秀外国留学生举行了奖学金颁发仪式。

全州大学经营系每年都会选拔在艰苦环境中刻苦学习的优秀留学生，并为他们颁发奖学金。本次2024学年第二学期共选拔了20名留学生，每人颁发50万韩元，共计颁发奖学金1,000万韩元。

9月13日经营学系还为全体留学生举办了中秋节体验活动。大约有50名留学生参加了此次活动，并体会了韩国传统节日的氛围。活动期间，为了让留学生分享故乡情、也为了增进相互之间的友谊，系里的教授们与留学生们共进了晚餐。

经营系主任李起勋表示：“这次获得奖学金的留学生大多数成绩都在4.0以上，这体现了留学生学业成绩的显著提升。虽然由于留学生人数减少，奖学金总额有所下降，但我们预计明年留学生人数将会增加，因此会更加努力，准备更多的奖学金。最后，我要感谢为筹备这次奖学金而努力的学校有人员及我们系的各位教授。”

另外，全州大学经营学院为了推动教育的改革创新，计划从2025学年开始，招收新生时，打破系之间的壁垒，通过区域化招生，保障学生选择专业的自由。

## 全州大学与全北国际合作振兴院签署业务协议



全州大学（校长朴珍培）12日消息，11日全州大学与全北国际合作振兴院（院长金大植，音译）签署了业务合作协议，旨在提高全州大学的国际声望，并增强地区社会的全球竞争力。

此次协议签署仪式在全州大学本馆接见室举行。朴珍培校长、金大植院长等全州大学及全北国际合作振兴院的10余位相关人员出席了签约仪式。双方承诺在外国留学生交流及提高地区社会国际化能力等方面展开积极的合作。

本次协议的主要内容包括：▲全北国际化振兴项目 ▲外国人定居支援项目 ▲海外发展支援项目等。

全州大学校长朴珍培表示：“通过此次协议，我们将构建涵盖地区与全球的合作体系，并将继续努力培养人才，推动地区共生与发展。”

签约仪式结束后，金大植院长为酒店管理系的留学生及在校生进行了特别讲座。此次讲座以“培养国际思维及加强海外就业能力”为主题，分享了金大植院长长期从事国际活动和工作的丰富经验。此次讲座为大学生的职业规划提供了很多帮助。

另外，全州大学在迎接建校60周年之际，以“与地区共存60年，迈向世界100年”为口号，正加速推进与地区社会的合作共生及全球人才的培养。

### JEBS의 모든 것

### "지성과 낭만의 소리, 전주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 [9월 뉴스 다시보기]

-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의 첫 단과대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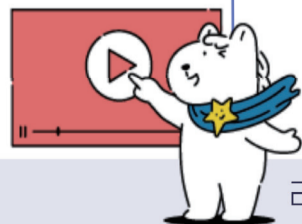
기획: 최민주  
 촬영: 박대한, 김가은  
 편집: 김수현  
 나레이션: 성보은  
 카드뉴스: 박은진

#### [JEBS 인스타 콘텐츠]

- 국군의 날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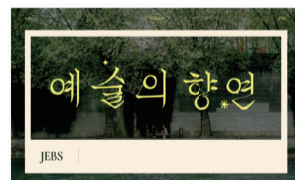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지정 배경, 내용 등을 함께 훑어봅시다!

기획: 최윤서  
 제작: 최윤서



#### [교내 라디오 소개]

- 뉴스\_정오의 천잠 월, 수, 금 점심방송
- 종교\_십자가사랑 화, 목 점심방송
- 음악\_크레센도 매일 아침방송, 화 저녁방송



- 자유\_예술의 향연
- 세계적인 예술가와 그의 작품 설명  
 기획: 성보은



- 자유\_키워드캐치
- 24년도의 주요 키워드를 라디오를 통해 나누는 시간  
 기획: 양하은




- 자유\_베이스볼 이브닝
- KBO리그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을 담은 라디오  
 기획: 최윤서



라디오 신청곡과 모든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전주대학교 교육방송국"으로!

# 전주대학교와 함께하는 2024 하반기 집중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2024. 9. 9.(월)~11. 22.(금)



## JJ기업탐방단

기업탐방을 통한 실무자 인터뷰 및 현장견학 등을 통한 도내 기업 발굴


- 운영기간: 2024. 9.~11.
- 방문기업: 전북자치도 내 중견기업 등
- JJ기업탐방단 주요 활동 내용
  - 1) 탐방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 등) 선정
  - 2) 기업 근무환경 및 시설투어, 실무자 인터뷰
  - 3) 기업분석보고서 작성 및 성과보고회 참석
- 참여혜택: 추천채용 연계 및 활동장학금 지급



## 공공기관 취업 캠프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취업전략 수립 및 채용전형 기반 맞춤형 교육


- 운영일시: 2024. 9. 20.(금)~21.(토), 1박 2일
- 장소: 베스트웨스턴전주호텔
- 주요 내용
  - 1) 현직자 멘토링을 통한 업무경험 공유 등
  - 2) 면접 유형별 대응 전략 특강
  - 3) 모의 면접(경험/인성, 토론, PT 등)
- 참여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 10곳



## 도내 기업 채용설명회

맞춤형 채용인재 연계를 위한 기업별 채용정보, 직무별 필요역량 등 공유

- 운영기간: 2024. 9.~11.
- 참여기업: 전북자치도 내 우수기업 등 (DH오트리드, (주)원진알미늄, 비나텍(주) 등)
- 주요 내용
  - 1) 도내 우수기업 소개(근무환경, 직원복지 등)
  - 2) 채용 직무분야 설명(직무기술서 기반)
  - 3) 채용전형 안내 및 추천채용 연계 등 질의응답



## JJ 직무 박람회 '내 꿈(Dream)을 잡(JOB)아!'

우수 졸업생 현직자 멘토를 활용한 관심직무 이해 및 필요역량 탐색 등 직무별 취업정보 제공

- 운영일시: 2024. 11. 6.(수) 13:00~17:00
- 장소: 전주대학교 하림미션홀 일대
- 주요 내용: 취업선배 현직자 멘토링관, 도내기업 채용설명관, 청년고용정책 홍보관 등



자세한 프로그램 정보 및 신청은 전주대학교 onSTAR 또는 전주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